

## 복지법인 운영개선 서둘러야

개방형이사제·외부회계감사제 등 도입 법제화 움직임 분주 “교계도 대책 세워야”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외부회계 감사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복지 법인 운영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교계 사회복지 법인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태가 잇달아 발생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에 개방형 이사제와 외부 회계감사제 등을 도입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는 올해 6월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생활 인원수나 직원수를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

을 불법 수령하거나 회계 관련서류 조작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 이사제나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고, 사유재산 침해 논란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불교계에서도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불교사회복지편람 2006>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388개이고

이 중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80.2%인 312개소다. 시설 소유 형태는 정부(지자체) 소유가 59.1%인 230개소이며 재정규모 역시 정부보조금이 결산총액의 30%를 차지한다. 정부가 ‘지원금’을 무기로 법률 제정을 강행한다면, 불교계 복지법인들에서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웅권 사무국장은 “관선이 사나 개방형이사 등의 제도 도입은 복지법인의 자발적 참여에 맡겨야지, 법률에 의한 강제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서울사회복지법인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월 8일 결의대회를 열고, 이어 오는 2월에는 여의도에서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와 시설장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될 예정이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안 스님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법인 설립의 기본 정신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교계에서도 시급히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寺’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청, 잠정목록에 등재

문화재청이 ‘산사(山寺)’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월 17일 문화재청장관 회의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산사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산사’를 세계문화유산 등재 잠정목록에 이미 포함해 등재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는 중이다. 유 청장은 “지리산의 산사와 조계산의 산사를 한데 묶어 ‘지리산사·조계산사’로 등재하거나 ‘남도 사찰군’의 형태로 등재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사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사고

#### 예비수험생·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빛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마가 스님
- 장소: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100명(200명)
- 시간: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 사고

####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주부터 24면...구독료 5000원 그대로

2007년 정해년을 맞아 독자 여러분 가정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복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지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대불교신문은 내부사정으로 폐간 위기에 부딪혔으나 다행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문을 계속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기존의 32면에서 24면으로 지면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5년 전 월 구독료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현행 구독료를 고수해 왔습니다. 그간 종이값과 인쇄비, 우편료 등 신문제작비용이 적지 않게 인상됐지만 독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지 않는다는 방침을 지켜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포교사입니다.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도 현대불교신문을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대불교신문 법보시 후원에도 독자 여러분은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은 24면 속에 더욱 알차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제안이나 고견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안·제보·의견 제시: (02)2004-8200(대표전화)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후원 계좌: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신년하례회 2부 다과회에 참석한 불교계 지도자 스님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정해년 좋은 한해를 맞아 만복을 기원하며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용 종로구청장,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순학규 경기도지사, 진각종 회장 통리원장, 정동영 전 서울시장,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해봉 국회정각위원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진 한나라당 의원,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사진=박재원 기자

### “정도 따르면 안정·화합 가능”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정치인 대거 참여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신년하례법회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김명곤 문광부 장관, 강제섭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순학규 경기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1월 1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도(正道)에 따라 나라를 잘 이끌면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화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정치의 요체로 치산치수 국방, 신뢰관계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지도자의 탁목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 진각종 통리원장 회장 정사는 상생과 화합의 이치를 실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사무총장 흥파 스님, 종단협 부회장 자승 스님, 이해봉 국회 정각회 회장,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변양균 청와대 불자회 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I Love Buddha / 생각의 그림자

용정운(www.buddhailust.org)

지금 자신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은...  
 자신의 심해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며...  
 무수한 사람들의 견해 속에 그저 또 하나의 생각이 불과할 뿐입니다.  
 자신을 그려낸 생각의 그림자 속에 가두지 마세요. 생각은 생각일 뿐... 그림자가 나가야 하는 거예요.

www.bexpo.org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관: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전시품목: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문의: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